

# “교육·복지·문화 혜택 강화...광산 행복지수 높이겠다”

민선 7기 구상 듣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지역의 가치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극대화 해서 품격 높은 광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0일 광산구청장실에서 만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민선7기 광산구의 핵심 키워드는 매력, 활력, 품격이다”며 “평균나이 36.4의 젊은도시인 광산의 매력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또 “품격높은 광산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 문화 보건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한 달간 그동안 행정에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온 김 구청장은 짧은 기간 광복 행보를 이어왔다. 고질적인 청사의 주차난을 해결한데 이어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시민참여형 광산 안전대진단’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 취임 후 첫 결실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기업을 유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오르듯 활력이 넘치는 광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시민참여형 안전대진단’ 마련  
‘살기좋은 우산동 만들기’ 역점 내년 수영대회 명소 자리매김

위한 기업지원센터 설립하고 한전공대 유치,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현안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산동 주민들을 위해 ‘살기좋은 동네 우산동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우산동을 상대로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필요한 부분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졌는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을 강구, 우산동 주민들의 삶이 광산구 복지의 척도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또 2019년 치러지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우 ‘그동안 거의 준비가 없었다’고 관련 부서를 질책하는 등 뒤늦게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산구 관내 남부대 수영장에서 치러지며 우산동 선수촌 아파트가 숙소인 만큼 광산구가 대회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대회가 광산구를 중심으로 치러지는 만큼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도시환경을 재정비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자치행정 혁신과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시대의 변화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위민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앞으로 4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김 구청장은 학창시절부터 현실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면서 다양한 경영 실무 경험도 갖추고 있다.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 6개월간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 고학연 곡성으로 내려와 농민 운동에 전념했다.

농민운동의 인연으로 곡성군수 비서실장을 역임한 후 도의원에 도전했으나 낙마하는 실패도 겪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태동하기 앞서 광주지역 친노 그룹의 실무형 핵심 인물로 적극 나섰다. 인연으로 청와대 인사수석 행정관을 지냈다. 광해관리공단 호남본부장과 광주시의회 운영전문위원 및 초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면

스스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왔다”며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것을 제외하면 30여년 세월동안 단 한 점의 오점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품을 지닌 김 구청장은 광주시와의 인사갈등 문제도 “지방 분권을 전제로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김 구청장은 민선6기에 광주시와 갈등을 빚었던 각종 소송 등을 취임후 곧바로 취하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김 구청장의 성품은 최근 첫 인사발령에서도 여실히 나타나 공직 내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소외직렬을 배려하고 능력을 감안한 발탁인사를 실시하고 나이와 경력을 안배한 탕평책이 공직 내부에 안정감을 줬다는 평가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당연 모 집이라는 합법적인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일 뿐으로, 앞으로 정당인으로서 더욱 사려 깊게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글=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팔레스타인 잔다르크’의 해방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 ‘저항의 상징’이 됐던 ‘팔레스타인 잔다르크’ 아헤드 타미미(17·가운데)가 29일(현지시간) 약 8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고향마을 나비살레 입구에 도착, 아버지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 라오스 총리 “댐사고 조사 한국·태국과 협력”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 수습에 나선 라오스 정부도 사고 원인 등 조사 과정에서 한국 및 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간 비엔티안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통론 시슬릿 라오스 총리는 전날 댐사고 관련 모금 활동 등 점점차 노동사회복지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투명하며 공정한 조사를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론 총리는 “라오스는 사고 처리 문제를 댐 건설사업에 주주로 참여한 기업들이 속한 국가들과 협의할 것이다”라며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국의 책임도 들여다볼 것이다”라며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허계약에 따른 댐 건설에 관련된 모든 일은 프로젝트 개발업체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론 총리는 우방 국가와 국제기구 등의 협조를 받아 실종자를 찾는 한편 집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 구호와 재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파트 주에서

SK 건설이 시공 중이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보조댐에서 5억 규모의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하류 지역 마을을 덮쳤다.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이재민 수도 1만 명을 넘어섰다.

SK건설은 지난 25일 조기행 대표이사(부회장) 명의의 입장자료에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일부 구간이 집중호우로 범람·유실되면서 하류 마을이 침수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마니 인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규격 미달의 공사과 폭우가 원인인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캄마니 장관은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다.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생겼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한 세피안-세남노이 파워 컴퍼니(PNPC)에는 시공을 담당했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이외에 라오스 기업과 태국 최대 전력회사 등이 투자했다.

/연합뉴스

## 미국무부 관계자 비핵화 언급

“완전한 대북 제재 필요”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이 방송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완전한 이행(full enforcement)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포츠 장비의 북한 반입을 허용해 달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했으나 미국이 반대했다는 최근 외신 보도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답변하면서 나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헤일리(유엔 주재) 대사가 지난주 유엔에서 밝힌 것처럼, 안보리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안보리가 이런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VOA는 전했다. /연합뉴스

계약서 많이 써서 꼭 돈벌어야 하는 분!  
열정이 남다른 중개사님, 실장님!  
딱! 세분만 모십니다.

(주)가은부동산 중개법인  
연락처 010-2800-3589

